

교과외 활동이 교육수요자의 학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창의적 체험활동, 생활지도, 상담활동을 중심으로-

The Effects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on School Satisfaction of Education Demanders

-Focused on creative experiential activities, life guidance, counseling activities-

전구훈*, 김희찬**

승실대 사회복지대학원*, 승실대 사회복지학과**

Gu-Hun Jeon(ssworker@ssu.ac.kr)*, Hee-Chan Kim(cocafree@naver.com)**

요약

본 연구는 교과외 활동인 창의적 체험활동, 생활지도, 상담활동이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학교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실천적·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 1,242명과 학부모 1,02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뒤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t검증,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세 가지 주요한 분석결과를 도출했다. 첫째, 교과외 활동은 학교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반적으로 한국의 학부모는 높은 교육열로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을 강조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학생과 학부모 두 집단 모두 교과외 활동이 강화될수록 학교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 급별로 학교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교 급이 올라 갈수록 학교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과외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고학년인 고등학교에도 지금보다 교과외 활동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 **중심어** : | 교과외 활동 | 창의적 체험활동 | 생활지도 | 상담활동 | 교육수요자 | 학교만족도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such as creative experiential activities, life guidance, and counseling activities on school satisfaction of students and parents who are educational demanders, and to suggest practical and policy alternatives to improve school satisfaction. For this purpose, 1,242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and 1,023 parents were tested through analysis of t-test, and regression. Three main results were derived. First, extracurricular activitie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school satisfaction. Second, in general, parents in Korea are expected to emphasize the entrance examination-oriented curriculum with a high degree of education, but the higher the extracurricular activities of students and parents, the higher the school satisfaction. Third, there was a difference in school satisfaction by education class, but the higher the education level, the lower the school satisfaction was. It can be seen that extracurricular activities are needed to increase the educational satisfaction of students and parents who are educational demander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extracurricular activities to the high school which is the upper grade school now.

■ **keyword** : | Extracurricular Activities | Creative Experiential Activities | Life Guidance | Counseling Activities | Education Demanders | School Satisfaction |

I. 서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전 세계 15세 학생 54만 명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성취동기, 신체 활동, 부모와의 관계 등을 설문 조사하여 발간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15 웰빙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학생들의 학력은 최상위권이지만 '삶의 만족도'는 OECD국가뿐만 아니라 비(非)OECD국가를 합친 48개국 중에서도 터키 다음으로 최하위였다[1].

학업성취와 사회·경제적인 환경이 비교적 상위권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 학교교육의 성과는 객관적 측면의 학업성취뿐 아니라 주관적 측면의 만족도를 포함하는 과정의 질을 모두 살펴야 한다. 객관적 측면의 학업성취가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이지만, 만족도와 정적 또는 부정적 결과를 내고 있는 요인을 살펴보면 신체 활동하는 시간이 매우 적었고(방과 후나 수업 전 스포츠를 하는 학생 비율이 46.3%로 OECD국가 중 꼴찌), 학습시간은 제일 길었으며, 학생과 부모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비교적 짧았다. 다시 말하면 교과 활동이 아닌 신체적 활동을 주로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고, 교과 활동인 학습시간이 가장 길었다. 또한 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파악되었다. 친밀한 어른과도 소통하기 어려워하는 청소년의 경우 학교에서 교사와 소통하는 것은 더 어려울 것이다.

OECD국가 중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만족도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 덴마크는 교육과 일상생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취계'이다. '취계'는 덴마크인의 정서를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용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정한' 혹은 '아늑하고 정겨운 분위기'정도이다. 취계교육은 학업성취를 위해 획일화되고 주입식의 교과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과 자율성, 창의성을 길러주기 위해 아늑하고 정겨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습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강조한다[2]. 수업시간에 차를 마시고 비스킷을 나누는 환경,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학생지도, 다양한 체험활동을 보장하는 취계교육은 느리고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의미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청소년기 삶에 중요한 시공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

는 학교가 지식의 전달과 함께 사회적 관계들이 잘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더 밝은 미래와 성공, 더 나은 물리적, 정신적 건강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3]. 그러나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은 지식의 전달과 관련된 교과 활동에 집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외 활동이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사, 학부모를 각각 단편적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교육수요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학교만족도를 비교분석 한 연구는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가 진행된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교육복지사업이 학교에서 운영이 되면서 교육복지사나 학교사회복지사가 학교에 배치되고 있다. 이들은 학교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의 업무는 교과 활동이 아닌 교과외 활동이 주를 이룬다. 창의적 체험활동, 생활지도, 상담활동이 교육수요자의 학교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파악한 본 연구는 학교 내에서 복지서비스의 개입가설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교과 활동과 교과외 활동

교육과정은 좁은 의미로는 '교과목 또는 교과에 담긴 내용'을 뜻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학교의 지도 아래 학생이 겪는 실제경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4]. 학교교육이 전인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라면 광의의 교육과정은 학교현장에서 수행되어야 하는데, 기성세대들의 지나친 기대로 입시에 적합한 협의의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어 왔다[5].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을 세분화하면, 크게 교과 활동과 교과외 활동(ExtraCurricular Activities)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최근 역량 중심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교육 흐름에서 교과 활동뿐만 아니라 교과외 활동도 강조하고 있다[6]. 교과외 활동은 교과 활동에서 포함하지 못하는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할 수 있으며, 지식 중심의 교과 교육과정이 다루지 못하는 실천적 측면을 다루고 있어서 교과 활동과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한다[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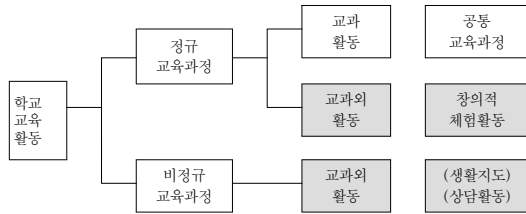


그림 1. 학교교육 활동의 구조

교과외 활동이라는 명칭 때문에 자유롭게 운영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교과외 활동도 학교 교육 활동의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제6차 교육과정(1992-1997)에 교과, 교과외 특별활동과 함께 학교 재량시간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되었고, 제7차 교육과정(1997-2007)에는 특별활동이 창의적 체험활동, 적응활동, 봉사활동, 계발활동, 행사활동의 5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5개 영역으로 구분되는 특별활동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분하였다[8]. 창의적 체험활동은 기초적인 지식 기능 등을 익히기보다는 체험활동 과정을 통해서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한다고 볼 수 있다[9].

비정규 교육과정의 교과외 활동은 다양하게 정의해 볼 수 있으나 ‘학교의 지도 아래 학생이 겪는 실제경험’이라는 광의의 교육과정 개념을 고려해 본다면, 생활지도는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적 활동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것으로 가장 의미있는 활동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즉, 생활지도는 일상적인 기본생활 습관으로부터 교과 수업 시간에서의 태도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과지도와 함께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실천되어야 하고, 상담활동은 이러한 생활지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다시 말하면 상담활동은 생활지도의 한 방법이지만 그 자체의 전문적 발전으로 인하여 생활지도의 핵심적 영역 혹은 방법

으로 자리를 잡았고, 이제는 생활지도의 위계적 관계가 아니라 병렬적인 위치라고 볼 수 있다[10]. 또한 생활지도와 상담활동은 어느 한 교과에 국한될 수 없으며, 독립된 교과서가 있는 교과목이 아니다. 어느 특정한 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사와 학교행정이 공동으로 담당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2. 교육수요자의 학교만족도

만족(滿足)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에 흡족함”이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학교만족은 “소속된 학교에 대하여 흡족하게 생각하는 정서적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만족의 주체, 즉 “누구”의 학교만족도인가에 따라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11].

학생을 주체로 한 학교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지금까지는 가장 많았으며, 학교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12][13]가 주를 이루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학업성취가 역으로 학생들의 학교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가 수행되기도 한다. 그러나 학교만족도는 학교 교육의 성과이며 동시에 학생의 학업 성취, 교사의 헌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 교사, 학부모 집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학교 경영과 교육 정책의 목표로 제시되는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 “교직원인 근무하고 싶은 학교”, “학부모가 신뢰하는 학교” 등은 궁극적으로 학교만족도는 다양한 주체에 의해 향상되기도 퇴보하기도 한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11].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만족도는 학교 교육의 특정 부분에 한정되어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학교생활, 학교 운영 등 학교 전반에 대한 심리적 상태로 측정된다면, 교사의 학교만족도는 주로 직무만족과 관련하여 다루어지고 있다. 교사는 학교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직업”으로 활동하는 구성원이며, 공급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만족도와는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동질적인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만족도를 동시에 비교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만족도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3. 교과의 활동과 학교만족도

학교교육의 성과를 인지적 평가인 학업성취도와 정의적 평가인 학교만족도로 나눌 때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인지적 평가인 학업성취 위주로 이루어 졌다. 학교만족도란 학생이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교과, 교과의 활동 등)을 통해 자아와 욕구를 실현하고 교사와 학생과의 만족스런 대인관계를 이룬 상태를 말한다. 최근 이루어진 초·중·고 학생의 학교만족도 변화와 관련된 연구[14]에 의하면 교사와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교만족도의 중요 요인은 크게 다섯 가지로 심리상태, 교수학습, 교사행동, 생활지도, 학교시설이라고 하였다. 교수학습이나 교사행동은 교과활동과 연결해 볼 수 있고 심리상태, 생활지도, 학교시설과 같은 요인은 교과의 활동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중요 요인으로 교과의 활동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용이성으로 인하여 교과중심의 학업성취나 사회·경제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연구가 지금까지 진행되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나 학교사회복지사업과 같이 현재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는 사회복지 사업의 주요 개입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주요 부분은 학교만족도의 향상이다. 교육복지사나 학교사회복지사는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과활동으로 학교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없다. 이들은 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하거나 학생들의 생활지도나 상담활동을 통하여 학교생활이 즐거워 질 수 있도록 돕고, 학교가 자신을 반겨주는 곳이라는 의식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해 왔다. 이를 통해 학업에 흥미를 느끼게 되고 궁극적으로 학업성취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개입가설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져왔다[12].

교육복지사나 학교사회복지사가 주로 만나게 되는 취약계층 학생의 경우는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학교에 대한 친밀도도 떨어진다. 이러한 취약계층 학생의 경우 학교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초기부터 교과 활동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경우보다는 교과의 활동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따라서 교과의 활동과 학교만족도의 인과관계를 밝

히는 것은 사회복지적 개입논리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러한 연구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I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양적조사(설문지)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설문은 지역특성과 학교특성(일반학교, 교육복지 중점학교, 교육복지 연계학교)을 고려하여 서울시 내 9개 초등학교와 9개 중학교 4개의 고등학교에서 진행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4학년 5학년 6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제한하여 설문을 수행하였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선정된 학교별로 2개 학급이 무작위로 조사를 수행했다. 학부모의 경우 설문에 참여하는 학생의 학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2. 분석변수

설문 문항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교육에 대한 인식, 학교교육에 참여 경험, 교육 및 지역사회공동체 인식 등을 묻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교과의 활동 지원을 파악할 수 있는 독립변수로는 5점 척도로 구성된 창의적 체험활동 정도, 생활지도 정도, 상담활동 정도로 조사하였다. 이 문항은 본 연구를 위해 제작한 것이며 내적일치도 조사를 수행하였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정도, 방과 후 학교 운영정도, 동아리 및 축제활동 정도, 진로교육, 특별활동 지원 정도로 5개 문항으로 된 척도를 사용했다. 5개 문항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883으로 나타났다. 생활지도는 인권을 생각하면서 생활지도를 하는지 묻는 문항과,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관심을 기울이는 지를 묻는 문항, 그리고 학교폭력과 왕따 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3가지 문항으로 된 척도를 사용했다. 3개 문항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Alpha)는 .838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상담활동은 학생상담의 내실정도와 학생에게 문제 상황이 발생 했을 시 소통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된 척도를 사용했다.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800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학교만족도는 3가지 문항으로 파악하였다. 학교는 필요한 능력을 잘 길러주는지 묻는 문항과, 학교생활의 재미 그리고 학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이 3문항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873으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교육 수요자의 두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욕구를 파악해 보았다. 학생과 학부모간의 교육욕구에 차이가 있는지 t검증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교과와 활동지원이 학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회귀분석으로 파악했다.

IV. 분석결과

1.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학생은 총 1,242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남학생은 652명으로 52%의 비중을 보였고, 여학생은 590명으로 47%의 비중을 보였다. 초등학교는 4학년 학생이 가장 많았고 중학교는 1학년 학생이 고등학교는 대체로 비슷했으나 2학년 학생이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이 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8.7%의 비중이었고, 중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52.6% 비중을 보였다. 교육수준이 하라고 인식하는 학생은 38.7% 비중이었다.

표 1. 학생의 일반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	비중	
학교 급별	초등	4학년	233	18.7
		5학년	132	10.6
		6학년	105	8.4
	중등	1학년	266	21.3
		2학년	230	18.4
		3학년	20	1.6
	고등	1학년	125	10.0
		2학년	129	10.3
		3학년	2	0.2
성별	남	652	52.3	
	여	590	47.3	
교육수준	상	107	4.0	
	중	647	43.2	
	하	476	50.5	

주1: 각 문항에서 결측 값 제외.

주2: 10점 척도에서 1-3까지 하, 4-7까지 중, 8이상은 상으로 분류함.

다음으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학부모는 총 1,023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표 2]는 설문에 응답한 학부모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학부모 가운데 어머니의 응답이 전체 85.1%로 아버지의 비중인 14.8%보다 높았다.

표 2. 학부모의 일반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	비중	
학교 급별	초등	4학년	208	20.3
		5학년	99	9.7
		6학년	90	8.8
	중등	1학년	231	22.6
		2학년	149	14.6
		3학년	35	3.4
	고등	1학년	106	10.4
		2학년	81	7.9
		3학년	1	0.1
성별	남	152	14.8	
	여	871	85.1	
교육수준	상	81	7.9	
	중	559	54.6	
	하	360	35.2	

주1: 각 문항에서 결측 값 제외.

주2: 10점 척도에서 1-3까지 하, 4-7까지 중, 8이상은 상으로 분류함.

2. 교육만족도 분석결과

[표 3] 창의적 체험활동, 생활지도, 상담활동, 학교만족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비교 분석해 본 것이다.

표 3.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만족도 차이

	구분	평균(SD)	N	t값
창의적 체험활동	학생	4.01(.806)	1233	3.734***
	학부모	3.89(.714)	1009	
생활지도	학생	3.89(.886)	1240	-1.861
	학부모	3.96(.758)	1003	
상담활동	학생	3.90(.906)	1241	.241
	학부모	3.89(.827)	1006	
학교만족도	학생	3.95(.913)	1237	.397
	학부모	3.93(.766)	1001	

*p<.05, **p<.01 ***p<.001

주: 각 문항에서 결측 값 제외.

분석결과 학부모와 학생 두 교육수요간 교육만족도는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유학기제의 시행으로 인해 과도한 학업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

험활동 교육을 경험한 학생들이 이러한 교육 방식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학부모의 경우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가 만연한 상황에서 체험 중심적 활동이 학력 저하를 유발 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학생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각각의 교과의 활동이 학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해보았다. 회귀 분석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세 개의 모델을 기반으로 분석을 했고, 세 개의 모델에서 성별, 학업, 소득, 학교 급별로 통제하였다. 성별은 남성을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만들어 통제변수로 투입하였고 학업수준과 소득수준은 10점 척도로 투입하였다. 학교 급별은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만들어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모델 0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고, 모델 1은 생활지도와 학교 급별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모델 2는 상담활동이 학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았다. [표 4]교과의 활동이 학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파악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4. 회귀분석 결과

	model 0		model 1		model 2	
	B	t	B	t	B	t
성별 (남성=0)	.032	1.088	.028	.327	.001	.029
학업수준	.004	.779	.005	3.862*	.013	2.503*
소득수준	-.563	-.351	.000	-.870	-.430	-.266
학교급별 (초등기준)						
중학교	-.256	-8.580**	-.182	-6.361***	-.293	-9.839**
고등학교	-.335	-8.431***	-.242	-6.346**	-.337	-8.447**
창의적 체험활동	.760	42.052**				
생활지도			.734	46.195***		
상담활동					.654	41.498***
상수	1.062	12.673***	1.094	14.325***	1.516	20.158***
R square	.561		.600		.554	

*p<.05, **p<.01 ***p<.001

분석결과를 보면, 모델 0의 R square 값은 .561로 설명력은 56%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의 경우, 남학생(주 아버지)에 비해 여학생(주 어머니)가 학교 만족도가 높았다. 학업수준은 학교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은 학교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학생(자녀)에 비해 중학교 학생(자녀)의 만족도가 낮았으며, 고등학교 학생(자녀) 역시 초등학교(자녀)에 비해 학교 만족도가 낮았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창의적 체험활동 참여는 학교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1은 60%의 설명력을 보였다. 통제변수의 경우, 남학생(주 아버지)에 비해 여학생(주 어머니)이 학교 만족도가 높았다. 학업수준은 학교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나타냈다. 소득 수준은 학교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학생(자녀)에 비해 중학교 학생(자녀)의 만족도가 낮았으며, 고등학교 학생(자녀) 역시 초등학교(자녀)에 비해 학교 만족도가 낮았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모델 2의 R square 값은 .554로 55%의 설명력을 보였다. 통제변수의 경우, 남학생(주 아버지)에 비해 여학생(주 어머니)이 학교 만족도가 높았다.

모델2에서도 학업수준은 학교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나타냈다. 소득 수준은 학교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학생(자녀)에 비해 중학교 학생(자녀)의 만족도가 낮았으며, 고등학교 학생(자녀) 역시 초등학교(자녀)에 비해 학교 만족도가 낮았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창의적 체험활동, 생활지도, 상담활동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학교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최근 학교 내 다양한 전문직이 배치되어 학생의 학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학교사회복지사나 교육복지사의 주요 활동이라고 여겨지는 교과외 활동이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 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다음과 같은 주요한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교과외 활동은 학교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학교가 단순히 학업성취도 향상만을 지원하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곳으로 역할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최근 자유학기제 등의 도입은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과외 활동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역할을 담당하거나 조율하고 지원하는 인력확충이 필요하며, 학교는 학생이 직면할 수 있는 심리적·사회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의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과 학부모간 학교만족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을 해본 결과, 두 집단 간에 일관되고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발견하지 못 하였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학부모는 높은 교육열로 인하여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을 강조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교육의 중요한 주체이자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모두 교과외 활동이 강화될수록 학교만족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학부모의 반대가 많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확대하지 못했던 교과외 활동을 좀 더 의욕적으로 확대·추진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셋째, 학교 급별에 따라서 학교만족도에 일관되고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갈수록 학교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학년으로 진학할수록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이 강화 되고 이러한 학업스트레스 요인이 학교만족도를 낮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교

과활동의 확대도 필요하지만 교과외 활동을 확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고학년인 고등학교에 지금 보다 교과외 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면 오히려 학교만족도가 향상되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입시제도의 변화를 통하여 교과외 활동이 대학 입학에 중요한 도구가 된다면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다.

본 연구는 한정된 지역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연구자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후속연구에서는 대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일반화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으면 한다. 또한 양적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본 연구는 질적연구와 같이 세밀한 내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질적연구 중심으로 진행하거나, 병행한다면 연구결과를 좀 더 풍성하게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1]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How's Life? 2015: 웰빙의 측정*, 서울: 아이프리트, 2016.
- [2] 김영희, *텔마크식 교육법* 서울: 명진출판사, 2010.
- [3] J. Heckman, "Policies to foster human capital," *Research in Economic*, pp.3-56, 2000.
- [4] 강현석, 주동범, *현대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서울: 학지사, 2012.
- [5] 주석진, 조성심, 라미영, 방진희, 엄경남, 이종익, 전구훈, *학교사회복지론*, 파주: 양서원, pp.569-588, 2016.
- [6] 이미숙, 조덕배, "일본과 필란드 교과외 활동의 주요 역량탐구 - 한국의 '창의적 체험활동'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48권, pp.139-166, 2014.
- [7] 김자영, "교과외 활동으로서의 법교육 방안 탐색," *법교육연구*, 제7권, 제1호, pp.33-55, 2012.
- [8] 김수동, "한국과 일본의 중등학교 교과외 활동과

- 방과후 특기·적성교육활동의 연계에 대한 고찰,” 한국교육학연구, 제20권, 제2호, pp.357-377, 2014.
- [9] 서보윤, “한·일 초등학교 교과외 활동의 교육과정 비교 : 한국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일본의 ‘종합적 학습시간’을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제18권, 제4호, pp.301-320, 2010.
- [10] 오만록, *생활지도 및 상담*, 파주: 정민사, 2011.
- [11] 김효정, 이길재, 이정미, “학교 구성원별 학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특성 비교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제31권, 제1호, pp.183-209, 2013.
- [12] 이봉주, 김광혁, “학교생활이 즐거우면 성적도 오를까? -학교만족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제4호, pp.287-306, 2009.
- [13] 박현선, 이현주, 정익중, “학업성취와 학교만족도의 종단적 상호 관계 : 빈곤 및 비빈곤 집단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42권, 제3호, pp.183-206, 2011.
- [14] 이성주, “초·중·고 학생의 학교만족도 변화,”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5권, 제2호, pp.569-588, 2015.

저 자 소 개

전 구 훈(Gu-Hun Jeon)

정회원



- 2013년 8월 : 숭실대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 2009년 ~ 2012년 : 전 한국학교 사회복지사협회장
- 현재 :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 학교사회복지, 아동·청소년복지, 교육복지

김 희 찬(Hee-Chan Kim)

정회원



- 2015년 2월 : 숭실대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석사)
- 2018년 2월 : 숭실대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관심분야> : 가족정책, 복지국가, 아동복지